

#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외국인 학생선발 시스템
  - ⑤ 대학원 조직문화

# ‘유학생능력’ 선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필요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재적현황이 지난 2011년 571명에서 2014년  
에는 787명으로 3년 동안 37.8%가 늘어났  
다. 이는 동기간 3,274명에서 3,636명으로  
약 11.0% 늘어난 학부 전체 재적학생 수를  
감안할 때 커다란 상승폭이라고 할 수 있  
다. 더불어 이러한 추세라면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  
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  
은 ‘소수’가 아닌, 대학원을 이루는 주요 구  
성원이 됐다. 하지만 이런 외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  
해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역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  
력에서 비롯되는 ‘수업의 질적 저하’ 문제  
다.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학원보  
가 진행한 ‘외국인원생 유치 및 관리 실태’



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내국인 학생 응답자 중 58.2%는 ‘현 외국인원생 유치 및 관리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많은 수의 학생들 (36.8%)이 ‘수업의 질 저하’를 꼽았다. 대학원에서조차, 학부과정에서 왕왕 지적되곤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역량이 떨어져 내국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대학원 조차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역 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 생회의 박진홍 회장은 “대학원 수업은 특 성상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발제와 발 표를 진행하며 서로서로 배워나가는 경향 이 있기에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이 이 과정 에 긴밀히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수업 분위 기를 쉽게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은 발표 준비를 할 능력이 없어 내국인 학생들이 이 유학생을 위해 팀을 짜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다” 며 실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다분히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실과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항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 인원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대학마다 규정돼있는 학생 정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래 이 규정은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율을 높여 국제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 규정은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프레임을 ‘소수정예의 고급인력’에서 ‘제한 없는 등록금 납부자’로 이동시킨 한 배경이 됐다.

하지만 해외 대학들은 우리의 사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령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 주요 대학의 대학원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과 동일한 전형에 응시해야만 한다. 츠쿠바대학교 국제교류협력부의 사케 타카기 팀장은 “입시는 외국인·내국인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같은 것을 베이基数인 한 조건으로 학사

안나. 같은 것을 매수기 위한 조건은 영상  
동등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유학 중  
인 유학생 유채연(종합문화 연구과 박사과  
정)양은 “일본 주요 대학의 대학원 중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한 특별한 입시제도가 있다  
는 것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인 학생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의 입시전형’ 대신 다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생 제도’가 그것이다. 연구생 제도는,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교수의 양해를 구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며 수업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이 기간에 담당 교수로부터 별도의 세미나 교육을 받으면 논문을 지도받는 제도다.

연구생들에게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정규 대학원생이 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정규 대학원생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연구생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 입시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연구생 제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이 연구생 제도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갖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 제도는 정규 대학원의 수업을 최소한의 검증된 학생들에게만 열어둠으로써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제도는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돋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 대학의 수업과정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적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 양은 “본인의 전공인 사회학의 경우, 일본의 사회학과 한국 사회학의 경향이 사뭇 다르다”며 “일본에서 사회학 수업을 들어보면서, 일본의 사회학에 대해 익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비단 외국인 입시제도로서 뿐만이 아니라, 융합학문을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지하듯 대학원에서 다루는 학문은 그 폭이 좁고 깊이가 상당하다. 때문에 학부과정과 다른 전공을 수학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입시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입학을한다고 한들 학부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온 동료들에 비해 연구성과를 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들이 연구생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문에 대한 이해를 기초 수준부터 차분히 쌓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 전공 지식과의 학문적 융합 아이디어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해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유 양은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을 바꿔 진학하는 일본인 학생들도 연구생제도를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연구생제도는 융합학문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 밖에도 연구생 제도는 본 학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생제도를 통해서 본 학위과정에 진입한 학생의 경우, 연구생 시절 지도교수와 교류하면서 미리 연구테마를 정해놨기 때문에 본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석사 과정 중 연구생제도를 겪은 사람들 이 수업연한인 2년 안에 석사 통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유 양의 설명이다.

일본의 연구생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 미달과 이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라는 종체적 문제점에 직면한 우리나라 대학원에게 하나의 커다란 대안적 시각을 갖게 해 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은, 애초에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거르지 못하는’ 입시선발과정의 문제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15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기간 : 2015. 5. 1(금)~2015. 5. 31(일)

##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  
(<http://web.khu.ac.kr/~happyyou/>)
2. ①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폭력예방 온라인 교육  
1, 2, 3 수강(4는 수강 할 필요없음)  
②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가정폭력 아는 만큼 멈출 수 있어요' 수강
3. 성평등 퀴즈 답안 작성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4. 성평등 상담실에 이메일로 제출  
[happyyou@khu.ac.kr](mailto:happyyou@khu.ac.kr)

결과발표 : 2015.6.4(목)

경품 : 쌤소나이트 백팩(7명), 스타벅스 카드 만원(31명)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 KYUNG HEE UNIVERSITY

## CLOTHING & TEXTILES

### 35th GRADUATE FASHION SHOW

2015.5.22 4pm / 7 pm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A stylized map of Seoul, Korea, where the city's outline is composed of numerous small, overlapping black and white photographs. These images depict various scenes: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dress, modern architectural structures like the Gwanghwamun Gate and a large stadium, and other urban landscapes. Overlaid on the bottom right portion of the map is the text "#SEOUL" in a large, bold, sans-serif font. The letters are primarily blue and orange, with some white highlights, and they appear to be cut out from the same collage of images as the map itself.

Design by @JEONGNIGHT